

#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



이사장 김홍식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아프리카미래재단과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 기도와 현금을 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호를 준비하는 두 달 동안 아프리카미래재단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고 모여졌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오늘날까지 성장시켜왔던 고 박상은 대표를 기리는 기념문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문집에는 박상은 대표를 만나 의료 선교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63인 이 글을 모아 『선한 의사 박상은 : 63인이 만난 그의 삶, 신앙, 사역』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전인 치유, 생명 윤리, 의료 선교의 꿈을 꾸며 아프리카의 미래를 심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상은 대표를 만난 이야기, 그를 통해 아프리카를 품게 된 이야기, 그리고 단기, 장기로 아프리카로 가서 사역하는 여러 사람들의 아프리카 사역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여러분들이 회고담을 나누었습니다. 미국법인에서 출판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한국법인에서 각각 절반씩을 부담했고,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가 기념회에 참여, 미국법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출판기념회가 있은 지난 7월 15일에 아프리카미래재단은 '박상은 기념 아프리카미래기금'을 출범하였습니다. 이 일의 출발은 미국법인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시작된 일인데, 아프리카 의료보건 인력 양성과 한국과 미국의 기독의사 간호사 등 의료보건 인력들이

아프리카 사역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할 것입니다. 1단계로 미국 법인에서 25만 달리가 준비되었고, 더 많은 금액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행사 당일 7월 15일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금 참여를 위해 작정에 참여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2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 미국법인에서 지원하고 있는 니제르 그레이스 아카데미와 임마누엘 아카데미(정혜림 선교사)에서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학생 프리냐마와 그 엄마 린바바를 긴급하게 서울로 후송하였습니다. 한국 법인에서는 후원을 통해 두 사람의 항공료를 부담하고, 아프리카미래재단 최재걸 이사장의 주선으로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기금을 통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수술을 잘 마쳐 경과가 좋습니다. 최재걸 이사장 집이 그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어려운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7월 12일, 학생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도착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덕분에 수술은 무사히 마무리 되었고, 퇴원했습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이 학생의 사후 관리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면역 억제제 치료가 계속되니 모든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잠비아 선교 소식

허일봉 · 전미령 선교사

주님 안에서 잠비아를 사랑하시는 동역자님께, 그동안도 평안하셨어요? 기도 편지를 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 전달되어 오직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편 9:1(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을 읽으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Wonders) 일들 중에 가장 기이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기이한데 복음 전하는 일까지 맡겨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도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곳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1. 제라 국제 보건대학

1) 6월 말에는 간호학과와 임상의학과 둘 다 국가고시를 치루었습니다. 임상의학과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참고로 잠비아에서 임상의학과는 매 학년마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 학년이 100% 합격이랍니다. 성적 발표하는 분이 도대체 이 학교는 어디에 위치한 대학이냐며, 심지어 성적도 모두 A 아니면 B+ 라며 이런 성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라 대학 뿐이라고 했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싱고고 교수는 너무 기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호학과는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많다 보니 9월에나 성적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 번에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나는 성적이 나왔는데, 올해도 모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제라 보건대학 기숙사 학생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성경 읽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모두 열중하며 말씀을 알아

AFFILIATED WITH

UNZA/DMED  
NMCZ  
HPCZ  
HEA

Zera  
International College  
of Health Sciences

CONTACT: 0770839120

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아직 선교부가 넉넉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기숙사비를 한 달에 25불씩 받고 있는데, 그 중에는 형편이 못되어 납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몇 명 됩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면 마음이 찐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면서 갑자기 학비와 기숙사비를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는 아이 등…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며 길을 찾고 있습니다.

3) 두 번째 기숙사 건축도 미장이 거의 끝나가고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시는 이장로님께서 건축비를 미리미리 보내주시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4) 8월 19일에는 고등 교육부에서 정기적인 대학 평가 심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매번 나온다는 날짜에 오지 않아 신뢰가 없지만, 이번에도 또 믿고 각 부처마다 다시 준비하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라 대학이 아무쪼록 좋은 평가를 받고, 기독 대학으로 주님 이름 높이는 대학되기를 원합니다.

5) 4년제 간호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 신청해 놓은 상태로 간호협회와 고등교육부 허가를 기다리는 중인데 일의 진행이 어찌나 느린지 벌써 몇 달이 지나가도 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알맞은 때에 승급이 될 것을 믿습니다.

6) 학생들이 정부 병원으로 실습 나갈 때 사용할 대형 버스와 직원들이 사무용으로 쓸 작은 미니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본관 건물이 없는 상태라 정상적인 본관 건물을 짓고 현재 사용중인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식당과 부엌, 단기 훈련 코스를 몇 개 새로 시작하면서 교실도 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크고 작은 필요가 많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 2. 치소모 병원

병리과 직원인 '락슨 무완디아'가 '잠비아 국립 공중보건국' 주관으로 진행된 연구 발표에서 그의 연구 주제가 선발되어 케냐 국립대학에 가서 발표하게 되어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히 연구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합니다.

## 3. 제라 국제 성경 교회

치소모 병원 아침 경건의 시간 제라대학 채플 방학 후 다시 기숙사에 돌아온 학생들이 찬양팀도 꾸리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 금요 성경 공부는 원활하지 못한 인터넷 서비스로 어려움이 있지만 점점 참가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싱고고 목사님과 은소푸 장로님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 4. 카젬바 진료소와 유치원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루 한끼라도 제대로 먹이려고 시작한 식사 시간에 인근 정부 학교 내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오면서 음식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중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간절해집니다. 일단은 질보다 양으로 전환해 가는 형편인데, 못먹는 아이들 상처받지 않고 다 잘 섭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 5. 그 밖의 일들

1) 몇 일 전, 전 선교사 대학 동기중에 한 명이 1억원의 현금을 보내왔습니다. 현지 은행에서 소식을 받고 저희는 정말 '의'하고 놀랐

습니다. 얼른 확인을 하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얼굴도 모르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사랑으로 세워진 병원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 그 사랑에 빛진 자되어 넌 아프리카에 가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너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격려하

는 것이 후방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니?" 그 친구는 남편 장로님의 이름으로 보내지 않고, 섬기는 교회에 현금을 했고, 그 교회에서는 '복음의 장막터를 넓히자'라는 올해 목표를 실행한다며 기쁨으로 잠비아에 현금을 보내셨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저희 옆에서 묵묵히 후원하며 기도하는 여러 친구들로 인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라의 필요가 많음을 이미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특별 현금으로는 제라의 필요한 건축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순위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기도 합니다.

2) 그루터기 해외 선교부가 첫 선교사를 1985년에 필리핀에 파송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가 선교 4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뉴욕 선교부 주최로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루터기 선교사들이 조촐하게 나마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 10월 13일에 뉴욕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또한 텍사스에 빛과 소금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그 외 후원하시는 몇몇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린 후, 11월 13일에 잠비아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 선교부의 부회장인 은쿠와 목사님이 오래 전 교통사고 당하신 후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재수술을 한 후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이사와 함께 은쿠와 목사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이사회 모든 분들과 우리 온 직원들이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맡겨진 책임들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살롬!



## 남아공 선교 소식

김재수 • 김순희 선교사

존경하는 후원교회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이상 기후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집들이 물에 잠기기도 하였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 희망봉 신학교

지난 약 3개월간, 학·석사과정에 집중강의를 하였습니다. 8월 초에 2차 집중강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박사과정에 수학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재교육이 두 군데서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은 겨울 추운 날씨이므로 잠간 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80키로 떨어진 곳에서 몇몇 목회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자가 봉사하는 합석으로 지어진 교회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 웨슬레 감리교단의 총회 기간 중에 세 분의 임원들이 희망봉 신학교와의 협력을 위해 만나서 교단 목사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의 재교육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 예상대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재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어서 이 문제를 추후 다시 상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한 신학교의 부탁으로 강의해오던 헬라어 성경 강독 강의는 이제 마치고 또 다른 한 신학교의 의뢰로 현재 성경 원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강의하면서 하나 감사한 것은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성경 원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 웨스뱅크 교회 목회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여전도회에서 매년 급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후로서 폭우가 왔습니다. 현재 제자 손이 전도사로 부임하여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는 현재 저와 함께 열심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웨스뱅크 교회에는 장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출석과 십일조에 대해서 본을 보이는

두 사람을 장로로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 후보자의 두 아들들은 평신도 설교자로서 봉사하기 위하여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 프란숙 어린이 교회와 방과 후 교실

김순희 선교사는 프란숙 방과 후 교실 시간에 매년 해 오는 하나의 행사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코로나 이전만 해도 아주 평화로운 지역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치안이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성경공부와 수학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 문서 사역

남아공의 비백인들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읽을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5여 년 이상 저는 웨스뱅크, 프란숙교회를 포함하여 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도서를 공급 받아서 기증해 줍니다. 올해에도 시골 교회 강의차 방문시에 항상 책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제자가 남미에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남아공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므로, 이미 언어는 준비가 되었고 다른 것만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강조합니다.

### 기독제목

1.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성경과 신학으로 목회를 위해서 준비를 잘 시킬 수 있도록
2. 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은 하지만 재정의 부족으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사회의 치안과 안정: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웨스뱅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김재수 김순희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지속적 재정의 후원과 사역을 위해서 이상과 같이 선교보고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 우간다 선교 소식

김세현 · 노미정 선교사

### “선교사님! 우리가 교회 설립 20주년 행사로 해외사역 중 하나를 기획중인데요...”

1. 깨끗한 물 ... 그것은 언제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소망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제1순위가 됩니다. 우물을 한 곳 파 주는 일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하는 큰 선물입니다.

2. 우물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면 그 자체가 전도의 기회이며 교회에 등록하는 자들이 들어남으로 부흥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3. 우물을 팔 때는 언제나 교회 부지 안에 설치됨으로 물뜨는 아낙네들과 어린 소녀들의 심리 속에 “교회 가면 물이 있어. 물 뜨러 교회 가자!” 이런 심리작용도 선교사는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4. 이번에는 미국 몽고메리 한인교회 최규태 목사님으로부터 카톡 카톡....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설립 20년이에요. 해외 지원 사역으로 여러 가지 중 우물 지원을 결정했어요.” 야호~ 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재빠르게 기다리는 우물지역 후보 중에 제일 기도하며 사모하는 간절한 곳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에 응답하심을 깊이 체험합니다.

5. 이번에 우물 선물이 주어질 교회는 오루카(Oruka) 교회입니다. 코비드19로 모든 교회가 문 닫고 있을 그 시절에 오히려 개척된 교회입니다. 근처에 먼저 시작된 교회인 프롱오교회 성도들이 이 마을에 와서 개척을 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코비드는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정부의 허락이 없어 공적인 예배당에서 예배는 못했지만 매주 가정교회 형태로 모임과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시작할 때 교인들은 20여 명 정도였어요. 그러나 코비드 이후 성도들의 헌신이 탁월

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즉석 건축현금을 준비하여 교회 부지로 2에이커(2,400평)을 구입하여 흙벽돌로 된 초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없는 관계로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 설립을 위해 기도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어른 80명 어린이 150명 이상이 예배중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근처에 깨끗한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뿐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더러운 물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 이런 우물이 꼭 필요한 지역에 몽고메리 교우들의 사랑의 현금으로 조만간 우물을 파게 되어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몽고메리 교우들 참 고맙습니다. 10월 중순의 20주년 기념에 맞추어 우물이 파질 것입니다. 함께 손모아 주시고 풍부한 수량과 수맥이 잘 발견되도록 기도합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기도에 늘 잘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 “13년간 짐바브웨에서 헌신한 의사 부부”

AFF 짐바브웨 강동원 · 전진경 지부장, 2025 JW성천상 수상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지난 24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2025 JW성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13년간 의료 봉사에 매진해 온 강동원 · 전진경 의사 부부가 올해 JW성천상의 주인공이 됐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지난 24일 경기도 과천 JW사옥에서 ‘2025 JW성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강동원(57) 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장과 전진경(55) 메디컬 디렉터 부부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1억원이 전달됐다.

연세대 의대 동문인 두 사람은 같은 기독교 의료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다. 1997년 결혼 후 평범한 부부 의사로 지내던 이들은 2010년 오래 준비했던 아프리카 의료 봉사의 꿈을 실천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강 지부장은 관동대 의과대학에서 약리학 교수로, 전 디렉터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임상 조교수로 재직하던 때였다.

이들은 설립부터 참여해온 비정부기구(NGO) 아프리카미래재단을 통해 봉사지를 물색한 끝에 의약품도, 젊은 의사도 부족한 짐바브웨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자가면역 희귀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던 강 교수는 하늘이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비행기를 탔다. 전진경 디렉터와 두 자녀도 함께였다. 전 디렉터는 “엄마들이 끊어죽기 직전의 아이를 업고 병원 문을 두드렸다”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부부는 낯선 짐바브웨에서 진료와 교육을 아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013년부터 짐바브웨 국립의과대학 임상약리학 교



실과 소아과학 교실에서 각각 무보수 전임교수를 맡아 현지 의료 인력 양성에 참여했다. 지난 13년간 두 사람이 가르친 보건의료 인력은 약 4,000명으로, 이들은 현재 짐바브웨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이다. 두 사람은 또 한국과 미주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짐바브웨 의료진의 연수 기회를 제공해 최신 의료 지식과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 디렉터는 현재도 짐바브웨국립의대 부속 셀리 무가베 어린이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도 하라레 인근 빈민층 어린이들에게 무료 진료 활동을 하고 있다. 수직 감염으로 인한 소아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환자, 말라리아 · 장티푸스 · 세균성 장염 등 감염성 질환자가 주를 이룬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두 사람에 대해 “단순한 의료봉사에 그치지 않고 현지 보건의료 체계의 자립과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집중해온 분들”이라며 “생존 기로에 선 아이들과 환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며 헌신했고, JW성천상이 추구하는 생명 존중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부부는 수상 소감을 통해 “더 열악한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 부끄럽다”면서도 “앞으로도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참 의료인’에 부합하는 삶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이 창업자인 성천(星泉)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2년 제정했다.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인을 발굴해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고 생명존중의 철학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 니제르 긴급 상황

정혜림 선교사



아프리카미래재단의 협력 선교사인 정혜림 선교사는 니제르의 여성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7년 여성 기숙사 학교인 그레이스 아카데미(Grace Academy)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니제르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행복이라는 아이들, 그레이스 아카데미는 니제르 여성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그레이스 아카데미의 학생 중 한 명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아프리카미래재단은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치료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미래재단 최재결 이사장의 주선으로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기금'을 통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월 12일, 학생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도착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덕분에 수술은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이 학생의 사후 관리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생이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또한 조혈기능을 돋는 약을 구해서 현지로 보냈고 초청장을 발행하고 신원 보증을 하는 등 환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하였다.

한국에 있는 동안 병원으로 통원하는 데 수월한 숙소가 마땅치 않다고 선교사가 얘기하여 아프리카미래재단 최재결 이사장이 자신의 집을 숙소로 제공하였다. 집이 씩 넓지는 않아서 불편은 하였지만 한국에 도착하는 날부터 돌봐 주게 되었다. 학생과 엄마는 7월 12일 한국에 도착하여 최 이사장의 집에 머물면서 수술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콩팥을 받을 프리냐마와 기증하는 엄마의 조직형이 잘 맞아서 7월 30일 정철웅 교수님의 집으로 수술이 무사히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회복 중에 있다.

프리냐마와 엄마 림바바가 수술 후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였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면역 억제제 치료가 계속되니 모든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같이 기도 부탁드린다.

\* 프리냐마에게 내일을 선물해주세요

목표 금액 : 500만원

모금액 사용계획 : 수술 전후 치료비, 체류비 및 생활지원비, 비자 및 행정처리, 긴급약품 및 의료물품,

후원 계좌 : 국민은행 264401-04-277371 (사)아프리카미래재단

모금 마감일 : 2025년 9월 10일 (수)

## 메디컬아이피, 아프리카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의학신문 · 일간보사 = 오인규 기자]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업 메디컬아이피(대표 박상준)는 아프리카미래재단(이사장 최재걸)과 아프리카 지역 의료교육 혁신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해부학 교육 솔루션과 AI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현지에 실질적인 교육 자원과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와 아프리카미래재단 최재걸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EMCU)은 국민 평균 수명 31.8세, 전 세계 평균 수명 순위 222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에스와티니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메디컬아이피는 아프리카미래재단과 협력해 의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디지털 해부학 교육 솔루션 메디박스(MEDIP Box)를 공급해, 사체 실습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밀한 해부학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메디박스는 환자의 실제 의료영상을 기반으로 구현된 AI 디지털 트윈을 통해 인체 해부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VR 디지털 교육 솔루션이다.

총 6,500개 이상의 정밀한 3D 인체 구조물을 전신, 부위별, 계통별로 분류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카데바(Cadaver) 이미지와 3D 모델링 구조물을 나란히 비교·분석할 수 있어 해부학 실습 뿐 아니라 이론 교육에서도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제공한다.

메디박스는 78년 역사의 대한해부학회 공식 인증 제품으로, 주요



기능은 △학습자가 3D 해부학 모델과 실제 해부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며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리얼아나토미 이미지(Real Anatomy Image)' △해부학 실습 시 해부 부위별 단계적 절개 과정과 해부 구조물을 안내하는 '다이섹션 가이드(Dissection Guide)'가 있다.

또한 △태아의 주차별 발달 과정과 임산부의 해부학적·생리적 변화를 정밀한 3D 모델로 재현한 '태아산모(Fetal Development & Maternal Change)' △실제 CT/MRI 영상과 3D 해부 모델을 연동해 영상진단과 해부학의 통합적 이해를 지원한 '영상 해부학(Imaging Anatomy)' 등도 탑재하고 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최재걸 이사장은 "작년부터 메디박스를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에 공급해 해부학 실습에 잘 활용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사체 실습이 어려운 현지 여건 속에서 메디박스는 큰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앞으로도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메디컬아이피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는 "이번 협약은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기술이 인류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다시 확인 한계기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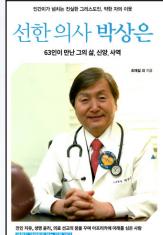
아울러 "메디박스를 비롯한 당사의 디지털 헬스 솔루션이 국제 의료교육 시장에서의 활용성과 확장성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보건의료 교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사업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의학신문 /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 AFRICA FUTURE FOUNDATION NEWS

### 63인이 만난 그의 삶, 신앙, 사역 『선한의사 박상은』출간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18년 동안 육성시킨 고 박상은 대표의 추모기가 『선한 의사 박상은』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인간미 넘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약한 자의 이웃이라 이름을 붙였다. 박상은 대표는 그동안 전인치유, 생명 윤리, 의료 선교의 세 목표를 갖고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심기 위해 크게 노력해 왔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그가 아프리카로 간 까닭은'에 17편, 제2부 '그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에 11편, 제3부 '가족들이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에 8편, 제4부 '그를 떠나보내며'에 6편이 실렸다. 신국판 사진 32면을 포함하여 280면. 도서출판 물맷돌 출간, 값 15,000원.

이 책에서 각기 다른 63명이 쓴 글이지만 공통적으로 중언하는 내용은 박상은 장로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환자들을 극진히 돌보는 의료인, 북한과 아프리카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픈 열망이 가득한 선교사였다는 사실이다.

박상은 장로는 해방 후 초기 부흥사 박용목 목사의 7명의 자녀 중 5남으로 태어나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신의대 내과교수로 재직,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에서 생명윤리 연수를 마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거쳐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대표원장, 누가회 회장, 한국기독교의료선교 협회 회장, (사)아프리카미래재단대표, 등을 역임했다.

### ‘박상은 기념 아프리카 미래기금’ 출범 아프리카 사역 활성화 위한 주도적인 역할 기대

아프리카미래기금은 지난 7월 15일 출범식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10명 내외로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행위원회로 회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구성은 아미재 한국법인 5명, 미주법인 3명, 가족 대표 1명, 외부 2명(샘병원, 누가회) 총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 AFF USA 정기이사회 개최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법인은 2025년 제3차 정기이사회를 지난 9월 12일 이사장 김홍식 장로집에서 모였다. 김홍식 이사장의 사회로 다섯 명의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아사회에서는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가 업무 보고와 재정보고 및 한국에서 7월 15일에 있는 출판기념회와 아프리카미래기금 출범 보고 등이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미국본부의 행정과 재정 분석 및 미래 정책을 연구하기로 하고 나삼진 사무총장과 석소정 이사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직무분석이 끝나면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할 계획이다. 행정 운영 및 회보 편집과 회원들의 현금 참여 중진 방안 등 당면한 문제들을 연구, 보고, 토론할 예정이다.

### 허일봉·전미령 선교사 LA방문

잠비아 치소모병원과 제라보건대학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AFF 잠비아지부장 허일봉·전미령 선교사가 10월 15일부터 나흘간 LA를 방문하고 14일에는 이사들과 선교 보고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 선교사부부는 자신들을 파송한 그루터기선교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중에 몇 지역을 방문해 동료 은퇴 선교사 방문 및 후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LA방문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들 선교사는 잠비아 루사카에서 의료가 방치되어 있는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치소모 크리닉이 치모소병원으로 성장하면서 간호사 양성 및 의료진 양성을 위한 제라보건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진을 양성하고 있다. 이날 이사들이 모여 그들의 수고를 감사하고, 선교사역 보고회를 갖고, 기도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웬데믹 기간에 제라보건대학 강의동과 강당동 건축을 지원한 바 있다.



## 아프리카 선교의 몇 가지 모습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undation USA 사무총장)

해마다 3월에는 한국의 선교사 현황이 발표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준비하는 이 발표는 해마다 한국교회의 선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한국의 선교사 총수는 171개국 21,621명이라고 합니다. 21,621명이 장기선교사이고, 516명이 단기선교사이며, 한국선교단체가 파송한 외국인 선교사는 986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교사는 최근 몇 년 들어 해마다 300-5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선교는 4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5,065명에서 2024년에는 7,292명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신규 선교사는 634명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이 아시아 선교사이고, 아프리카 선교사는 67명으로 11.2%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6년 사이에 50대 선교사가 51%에서 69%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1980년대에는 해외선교도 놀랍게 증가하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제 40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까지 파송된 여러 선교사들이 중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통계가 보여주는 바는 한국교회에서 선교사의 노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같은 비율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만나고 선교지를 방문할 때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몇 가지 사역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개척교회하는 경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이 일에 매진하는 선교사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들은 복음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역을 하는 경우입니다.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이 안 되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선교지 사람들은 많은 경우 학비를 제대로 받을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가 전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초창기 이화학당이 설립될 때는 양가집 자제들이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서 공부하기

를 원하지 않아 고아들을 불러 교육을 시켰던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 운영이 쉽지 않지만 효과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를 설립하고 신학 교육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교사가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여 그들이 지역으로 나가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료보건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료선교사로 파송되어 의료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의사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수련의와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존경받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들에게 의료선교사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우물파기도 하나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물이 귀하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선교지 중에는 우물파기 사역을 선교의 중점 사역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쟈드에서는 500개 이상을 우물파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질병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선교지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면 깨끗한 물이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다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관심하는 바에 따라 사역의 방향도 다릅니다. 이러한 다른 선교사들의 다른 사역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 아프리카를 꽂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 기관번호 (FEIN)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50)  
714-732-1484 (미국) +82) 31-342-9182 (한국)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TEL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송금하실 때(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 Zelle를 보내실 때  
- 이메일 : africaffusa@gmail.com  
- Africa Future Foundation

### 선한 청지기들 2025. 7. 1 - 9. 30 / 재정 보고

#### 현금자 명단

김명숙 김방선 김준영 김은식 김응원 김인용 나삼진 백형순 송은석/이원희 석소정/김진영 윤계승/윤경분 이애숙 이종남  
송영은 송은석/이원희 송영애 양해중 이경호 이승숙 이애숙 이종남 이홍철 장국현 태승남 황길남/황로미  
Andrew Kim, Eun S. Kim, Ester Lee, Nate Kim, Kani N. Han Pae Lee, Michelle Lim, Woo/  
Min Sun Lim, Moses Park, Simon Paek, Michael Yang, John Yahng, Roger Smith, Victor Rhee  
아틀란타한인간호사회,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새벽이슬교회, 신약국(신사라), 예수소망교회, 오렌지  
카운티샬롬교회, JJ물리치료(정정훈), America Online Foundation, Exalting Christ Church of  
Atlanta, Messenger of God, Hope Family Medicine with Express Care, Livingstone Home Health

\*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AFF사무총장(나삼진 목사, 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으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부

7월	10,500
8월	1,840
9월	24,020.75
수입계	36,360.75

#### 지출부

사업비/ 남아공(이규성)	3,000	강스테반	2,000
마다가스카르	6,000	한국 AFF	2,950/박상은 출판비
김세현	2,000	한국 AFF	7,270/인건비 7-9월분
김경환	3,000	소계	35,220
김재수	2,000	행정비/사무비 등	653.67
이상철	2,000	인건비	2,743.50
곽찬양	2,000	세금/CPA 수수료	733.00
곽찬양	3,000	소계	4,130.17
		지출합계	39,350.17

#### 수입부

아틀란타 지부

7월	4,700
8월	4,300
9월	4,420
합계	13,420

#### 지출부

부냐끼리 병원 운영비 지원	4,720/2개월분
수수료	50
합계	4,770

### 분기 결산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http://www.africaffusa.org)

